

20

빛 내서라도...2030 불안한 재테크

30

광주·전남 지난해 주식 투자 '코로나 이전의 3.7배'...마이너스 통장 개설 8배 급증

치솟는 물가와 집값에 대응하기 위한 2030들의 재테크가 치열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주식 열풍으로 투자에 뛰어들어 청년들이 2년 새 4배 급증했고, 빛내서 투자하기 위한 이유 등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사례도 8배 넘게 증가했다.

29일 한국예탁결제원 광주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 20대 주식 투자자는 10만6181명으로, 전년보다 100%(5만3099명) 증가했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불붙은 투자심리는 젊은 '개미' 투자자에게도 퍼졌다.

광주·전남 20대 주식 투자자 수는 2019년 1만8242명→2020년 5만3082명→지난해 10만6181명 등으로 2년 새 5.8배 수준으로 뛰었다.

지난해 광주·전남 30대 투자자도 12만2692명으로, 전년(7만4114명)보다 65.5%(4만8578명) 급증했다.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4만

3317명)의 2.8배 수준이다.

지난해 광주·전남 2030 주식 투자자 증가율은 지역 평균 증가율 51.9%(45만1075명→68만5215명)를 크게 웃돌았다.

40대 45.2%(10만5990→15만3868명)와 50대 38.5%(10만7648명→1만9136명), 60대 31.6%(6만920명→8만162명) 등 모든 연령대를 뛰어넘기도 했다.

무리해서라도 주식·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강행하거나 생활고를 감당하기 위해 빛을 내는 청년들도 증가 추세다.

지난해 광주은행에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신규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은 554건으로, 전년보다 123.4%(306건) 급증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에는 67건에 불과했지만 이듬해 248건, 지난해 554건 등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광주은행의 지난해 평균 마이너스 통장 증가율은 109.1%(2757건→5764건)로, 청년 증가율을 밑돌았다.

아울러 청년층 신규 가계대출 증가율(83.9%)은 전 연령대 평균(39.1%)을 2배 이상 앞질렀다.

광주은행에서의 청년층 가계대출은 2019 7310건, 2020년 1만4380건, 2021년 2만6448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전체 신규 가계대출 건수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15.7%(2019년)→17.7%(2020년)→23.5%(2021년) 등으로 늘고 있다.

반면 지난해 청년들의 신규 저축은 6만5184건으로 전년보다 42.3%(1만9369건) 증가했는데, 이는 광주은행 전체 개인고객 신규 저축 증가율 48.4%(22만1992건→32만9444건)를 밑돌았다.

전체 신규 저축 건수 가운데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21.9%(12만8250건 중 2만8078건)→2020년 20.6%(22만1992건 중 4만5815건)→2021년 19.8%(32만9444건 중 6만5184건) 등으로 줄고 있다.

취업정보사이트 사람이이 지난 연말 직장인 32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더니 응답자의 77.1%는 자신의 급여에 만족을 하지 않고 있으며 절반 이상(54.1%)은 '자산 투자 활동'을 하고 있었다.

투자 활동으로는 주식(76.1%·복수응답)이 1위였다. 다음으로 예·적금 등 목돈 저축(63.8%), 가상화폐(21.6%), 펀드·채권(19.7%), 부동산(11%) 등의 순이었다. 지난 2018년 같은 설문조사에서 예·적금이 86.4%를 차지하고 주식 40.3%로 뒤를 이은 것과 대조됐다.

투자활동을 하는 이유로는 '투자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어서'(43.8%·복수응답)와 '월급만으로 생계유지를 할 수 없어서'(40.9%), '내 집 마련, 결혼 등을 준비하기 위해서'(35.9%),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몰라서'(32.7%) 등을 꼽았다.

청년들의 고군분투 속에서도 광주·전남 2030들의 내 집 마련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지난 2020년 광주·전남 20-30대 아파트 소유자는 광주 5만1614명·전남 4만4804명으로, 전체 아파트 소유자의 15.7%, 16.5% 비중을 각각 차지했다. 1년 새 광주 2030 아파트 소유자는 3064명(-5.6%) 줄고, 전남은 140명(0.3%) 늘었다. 5년 전인 2015년의 2030 아파트 소유자 비율은 광주 21.2%·전남 20.5%로, 해마다 비중이 줄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채용시장 혼풍 부나... 10곳 중 7곳 "계획 있다"

'작년보다 확대' 30.6%... '수시 채용' 60.4%·'정기+수시' 31.1%

기업 10곳 중 7곳은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신규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됐던 채용시장에 혼풍이 예상된다.

29일 한국예탁결제원 광주지원에 따르면 100인 이상 기업 508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신규채용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응답 기업의 72.0%가 '올해 신규 채용이 있다'고 답했다.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17.3%, '신규 채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답변은 10.6%였다.

코로나19 사태 충격을 벗어나 경기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신규 채용에 나선 기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기업 규모가 클수록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응답 비중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채용 계획 있음' 응답은 100-299인 기업 이 68.4%였던 반면, 300-999인 기업은 71.3%, 1000인 이상 기업 82.5%에 달했다.

신규 채용을 하겠다는 기업을 대상으로 채용 규모를 조사한 결과 '작년과 유사하다'는 응답이 59.6%를 차지했고 이어 '작년보다 채용을 확대한다'는 기업은 30.6%, 축소한다는 기업은 9.8%로 나타났다.

작년보다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36.2%는 채용 확대 이유에 대해 '결원 충원'이라고 답했다.

신규 채용 방식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60.4%가 '수시채용만 한다'고 밝혔다. '정기공채와 수시

채용을 병행한다'는 응답은 31.1%, '정기공채만 한다'는 답변은 8.5%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19.9%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 청년 고용 문제의 주된 원인에 대해서는 41.7%가 '임금 격차 등에 따른 대기업·공공부문의 구직 쏠림 현상'이라고 답했다. 이외에 '청년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 부족'(17.3%), '학력 과잉 및 산업계 수요와 괴리된 교육시스템'(13.8%),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고용 보호'(8.9%), '정부·정치권의 규제강화 입법'(6.9%) 등이 지적됐다.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방안으로는 '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29.5%),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부정적 인식 개선'(25.6%) 등이 꼽혔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다수공급자계약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광주상의, 12곳 선착순

광주상공회의소는 지역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및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 제도는 기존 최저가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제품의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이 별도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손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공공조달시장은 국내총생산(GDP)의 9%에 달하는 175조8000억원 규모로, 지역 중소기업은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조달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으나 전문 인력 및 정보 부족으로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상의는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을 강화해 나라장터 등 전국 주요 기관의 입찰 정보를 제공, 이번 다수공급자계약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더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직접생산증명서 및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광주 소재 제조기업으로 12개사를 선착순 모집한다. 광주상의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기업에게는 300만 원 상당의 전문가 컨설팅을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최종만 광주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전문인력 부족 및 컨설팅비용 부담으로 나라장터 쇼핑몰 제품등록을 포기했던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기대한다"며 "향후 유망기업 제품 홍보간담회 등을 개최해 지역기업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롯데백화점 모델들이 다음달1~17일 진행되는 '봄 정기세일'에서 판매할 골프 의류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일상으로 갑시다" 광주 백화점 봄 정기세일

광주신세계 '렛츠 고 아웃' 주제 100개 브랜드 최대 60%

롯데백 광주점, 골프상품 행사...내달 10일 '퍼플핀' 오픈

광주 주요 백화점들이 '일상 회복'에 초점을 맞춘 봄 정기세일을 오는 4월1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다. ㈜광주신세계는 이 기간 동안 총 100여 개 브랜드가 최대 60% 할인율을 걸고 정기세일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렛츠 고 아웃'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일에서는 여성류류 최대 30%, 스포츠 20%, 핸드백 20%, 아동류 10-30%, 주방 10-60%, 집구 10-50% 등에 달하는 할인 혜택을 접할 수 있다.

본관 지하 1층 스페셜 스테이지 행사장에서 의류 인기 상품전을 진행하며, 4-10일 밀폐용기·생활잡화 할인전도 연다.

1일부터 3일까지 행사카드를 파sen 단일 브랜드를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금액대별로 5% 상당 상품

권을 증정한다. 비대면 소비 추세를 감안한 생방송 판매(라이브 커머스)와 온라인 행사도 이어간다.

오는 7일에는 등산화 브랜드전, 11일에는 봄나들이를 위한 워피스·스포츠 의류 할인전을 신세계 백화점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한다.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는 신세계백화점 모바일 앱에서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랜더스테이'를 운영한다. 추첨을 통해 야구장 스카이박스 관람권과 다용컵, 야구 관라관 등을 준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같은 기간 봄 정기세일을 진행한다.

일상 회복 추세에 따라 '녹색 도피'(GREEN ESCAPES)라는 주제를 정해 야외 활동 위주 할

인전을 벌인다.

우선 4월1일부터 3일까지 봄 성수기를 맞아 골프 상품권을 행사카드로 구매한 금액에 따라 15% 상당 롯데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다음달 10일에는 시타실을 갖춘 골프용품 전문점 '퍼플핀 골프샵'이 점포 6층에 새로 문을 연다. 1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방문 쿠폰에 따라 사은품을 주며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할인권과 골프공을 증정한다.

야외 활동에 적합한 아웃도어 의류는 구매 금액에 따라 모바일 상품권을 주며, 화장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증정 행사를 벌인다.

여성 의류는 구매 금액의 15% 상당을 상품권으로 돌려주며, 일부 브랜드는 이월상품 할인 판매를 한다.

롯데백화점은 세일 기간에 맞춰 '제1회 와인 페스티벌'을 열고 1만5000원, 2만원, 3만원 균일가 행사를 진행한다. /백희준 기자 bhj@

"코로나 극복하고 미래산업 발굴하자"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 정기총회

(사)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는 29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제1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위드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미래산업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협회는 총회에서 올해 새정부 출범에 따른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서울 본회를 비롯해 부산, 대구 등 영남지역 지회와 교류 활성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올해 주요사업은 매분기 1회 개최되는 광주전남벤처포럼, (사)벤처기업협회 본회와 공동 사업으로 진행되는 인사이트포럼, 대구지회와 함

께하는 달빛동맹교류회, 부산지회와 함께하는 벤처기업협회 영호남교류회 등이다.

오는 11월에는 여수에서 에너지밸리기업발전원과 에너지기업 및 벤처기업 통합워크숍을 개최하고, 12월에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벤처기업 및 ICT·SW기업인의 밤 등 다양한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회원사간 적극적인 교류를 도울 방침이다.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오미크론 확산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고충이 높은 시기"라며 "지역 벤처기업인들 조금 더 좋은 여건 속에서 기업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산단공 광주본부 제1회 광주권 비즈포럼 개최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29일 산업 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2년 제1회 광주권 비즈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하는 등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의 보유기술, 광주디지털주도 제조혁신센터에서 추진하는 디자인 공모사업, 광주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 광주시 안전시설물 인증지원 사업 등 지역 기업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했다.

산단공 광주본부는 앞으로 비즈포럼을 통해 맞춤형 수요·공급 기술을 연결하고, 기술거래를 촉진시켜 이전기술 기반 사업화까지 추진하는 등 기술사업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황상현 산단공 광주본부장은 "산업단지 최신 동향과 기술을 전파하고 협업형 비즈니스 창출 성과확산을 위해 기업간 정보교류의 장인 비즈포럼을 분기별 개최할 예정이다"며 "산단 입주기업과 지원기관의 매개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41.07 (+11.51)
↑ 코스닥	937.83 (+10.72)
↓ 금리 (국고채 3년)	2.700 (-0.047)
↓ 환율 (USD)	1219.80 (-7.50)